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		배포일자	2021년 2월 14일(일) 총 3매	
담당 부서	수 산 과	담당자	• 수산유통팀장 공 석 • 담 당 자 배주승 ☎440-4882	
사 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어촌특화사업 '재협약' 체결
- 살고 싶고, 가고 싶은 어촌, 특화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'상호 협력'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지난 10일 어촌 6차산업 융복합을 통한 인천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(이사장 최명용)과 위·수탁 재협약 〈2021. 2. ~ 2023. 12. (3년)〉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인천시는 2018년 6월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현장 밀착형 전담조직인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(센터장 김종범)와 함께 지난 3년간 관내 58개 어촌마을의 특화어촌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.
- 주요 성과로는, 어촌마을 주민들의 교육·연수를 통해 리더 역량을 개발하고, 마을별 특화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, 이를 통해 ‘해조수딩젤’ (중구 마시안마을), ‘새우XO소스’ (강화군 강후마을), ‘해산물 발사믹 소스’ (옹진군 영암마을) 등 특화상품을 개발 하였고, 온·오프라인 유통체계 구축 지원과 SNS채널 홍보, 특별장터, 지역 박람회 등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 운영하여 어촌마을의 어업 외

소득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.

- 그 결과, 해양수산부 주관 ‘어촌특화지원센터 성과평가’에서 2019 ~ 2020년 연속해서 ‘최우수’ 평가를 달성하는 등 전국 어촌 특화지원센터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.
- 인천시는 이번 재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어촌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△지역특화프로그램 전수 △어촌멘토단 운영 △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△어촌마을 자매결연 등 11개 세부사업을 구체화 하여, 코로나19로 위축된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- 박영길 해양항공국장은 “이번 재협약을 통하여 인천 어촌이 가지고 있는 유·무형의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, 주민 스스로 어촌관광 상품을 판매할 능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참고

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추진 사업

☐ 어촌마을 역량강화 및 교육



1. 어촌마을 컨설팅



2 어촌마을 사후관리 모니터링



3. 비대면 교육 콘텐츠 활용

☐ 어촌특화상품 개발지원



4. 중구 마시안 '해조수딩젤'



5. 강화군 강후 '새우XO소스'



6. 용진군 영암 '발사믹 드레싱'

☐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



7. 수산물 특별장터 운영



8. 어촌특화상품 박람회 참여



9. 어촌마을 자매결연